

解冤相生の 多元的 考察

林 泳 暢 *

目 次

I. 導入部	III. 本論部(二)
緒 言	1. 五行易學으로 본 解冤相生
1. 天地人 三極의 大病 小病	2. 因果律的으로 본 解冤相生
2. 唯一한 治方, 解冤相生	3. 神·人·自然과의 三角函數的 解冤相生
3. 宗旨 四段階 구조의 核心	4. 人間的 社會生活과 解冤相生
4. 多元 多目的的인 解冤相生	5. 世界的으로 본 解冤相生
II. 本論部(一)	IV. 結語部
1. 冤의 本質 및 유형	1. 修道·修養의 原理
2. 解冤의 必要性 및 方法	2. 社會 共同體 形成의 要諦
3. 相生의 意義	3. 國家經營의 大綱
4. 解冤과 相生의 相關關係	4. 世界平和 建設의 指標

I. 導入部

緒 言

지난 정축년(丁丑年) 곧 1997년 12월 18일¹⁾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남부에는 역사상 일대 이변의 사실이 일어났다. 그것은 이변이라기보다 인과 법칙에 의한 필연적 사실로 한번은 그렇게 되어야만 할 당위성(當爲性)을

* 전해사 교수

1)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지난 사실(史實)로 이 나라 역사에 족적(足跡)을 남기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에서도 서남(西南) 한 어촌출생의 입후보자가 30년간의 정치생활에서 다섯 번이나 사경(死境)을 넘고 출마 네 번만에 20만표의 차로 근승(僅勝) 당선인 된 사실이다.

일개인의 당선이라든지 한 정당의 승리라든지 하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는 여·야 정권교체와는 그 의취를 달리하는 의의가 있으니 광주광역시의 지지율이 98%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호남, 호남사람 전체의 원(冤)과 절원(切願)이 해결, 해원(解冤)되었기 때문이다.

이 원한은 더 소상(遡上)하여 조선선조(宣祖朝) 정여립(鄭汝立)의 역모로 일어난 기축옥사(己丑獄事)²⁾ 이후 호남을 반역향(反逆鄉)으로 규정하여 서북인의 불등용(不登用)과 함께 관로(官路)를 막아버렸던 사실(史實)이 원원(遠冤)이 되기도 한다.

또 훨씬 거슬러 오르면 3국시대에 나당(羅唐) 연합군이 제일(濟日)의 동맹군을 쳐부수고 문화 찬란했던 선진국 백제를 회신(灰燼)하여 그 유적과 문화가 거의 자취를 감추리만큼 되었던 역사적 원한도 연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하기야 가까이 해방후에는 제3공화국 박정희정권때부터 푸대접을 받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도 5·18을 위시한 화살과 박해를 받았던 과거가 해원의 새로운 장(章)을 열게 된 것이니 현실사적으로 모씨가 국가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정신적 해원의 성취감을 얻은 것이 크다 할 것이다.

8·15가 일본의 기반(羈絆)에서 해방된 민족적 해원(解冤)이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서북인 우남(雲南)³⁾이 대통령이 된 것은 북한 출신들의 해원이 된 것이며 임영신(任永信)⁴⁾여사가 장관이 된 것은 여성해방의 해원적 사실로 간주되는 해원사도 있다.

그러나 해원이 해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이상의 목적론적 해답이 아니라, 대순의 종지가 규정한 '해원상생' 그대로 상생의 적극적 행위가 결부되어야 소극적인 해원의 가치가 뚜렷한 공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2) 乙丑獄事 鄭汝立 (?~1589)로 인해 전라도를 반역향(反逆鄉)이라고 하였다.

3) 雲南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아호

4) 任永信 - 대한민국 초대 국무원 상공부장관, 중앙대학교 창립자

때문에 해원과 상생의 독립된 관념의 단어들을 해원상생이라는 복합어로 구성하여 이것을 음양합덕, 신인조화의 다음에 종지의 셋째로 하고 결론적으로 도통진경을 넷째 강목(綱目)으로 하여 4강(四綱)으로 구성한 옥황상제로 봉대하는 도주 정산이 증산의 단편적 사상을 체계화한 것은 교단으로서의 성립구성과 함께 대순사상을 완성시킨 도주로서의 능력과 권화(權化)가 신인(神人)다운 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원상생의 본론적인 논의에 앞서 우주전체의 원(冤)과 한(恨)과 척과 살(煞)이 서리어 천체와 대기가 부정(不淨)하고 대지(大地)가 황폐하고 하천과 해양이 오염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니 우주에 가장 존귀하고 근본이된다는 인계에도 전대미문의 질병과 범죄가 득실거리는 상태가 되어 증산이 말한대로 가위 진멸(殄滅)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고 있다.

1. 天地人 三極의 大病小病

우주 전체 다시 말하면 천계·지계·인계의 3극 곧 3재가 대소 갖가지의 병질을 앓고 있으니 바로 증산이 전경에서 말씀한

病有大勢 (병에 큰 증세가 있고

病有小勢 병에 적은 증세가 있다)⁵⁾

고 한 그대로 3계 구석구석에 큰 병 적은 병이 득실거린다.

하기야 이 말씀은 인간 사회에 윤리도덕이 허무러진 것을 훈계한 것이지만 오늘의 3계 전체가 자연과학적인 현상이 현실적으로 병증을 나타내고 형의상적인 현상은 정신적으로 아주 불치(不治)의 중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극단의 논자들은 인류의 자연과학의 발달과 기계산업의 발달이 3계 전체의 자연생태와 생활질서를 파괴한다고서 이를 폭력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여 대량의 범죄를 자행한 사람도 있는 사정이다.

그 대표로 작년 미국 FBI에 검거되어 지금 연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5) 甌山 玄武經

있는 미국의 물리학자 유너 버머(Una Bomber)⁶⁾같은 사람의 사건이 그것이다.

그의 본명은 데오도르 카진스키(Teothor Kajinsky), 일찍이 하버드대학(수학 전공)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뛰어난 재능으로 25세에 미시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대학의 종신교수 재직권을 획득한 수재학자였다.

교수생활 2년후 현대문명에 반기를 든 그는 몬테나주 강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결혼도 하지않은 채 근 30년을 지내면서 항공사 폭파 2차, 살상자 14명등을 낸 폭탄테러의 범죄를 매년같이 하다가 작년 96년 4월에는 '반문명 선언문'이 두가지 신문(아메리칸헤럴드·워싱턴포스트)에 각각 8페이지 별지로 소개되어 큰 화제를 던졌다. 그것도 신문사 폭파위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무튼 우연히 눈치챈 그 동생의 제보로 혐의를 받아 체포되어 심문하니 당당하게 사실을 다 자백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에피소드를 왜 소개하느냐 하면 이 유너버머나 또 다른 반문명의 '네어러디즘' 신봉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산업화, 기계화의 문명이 천계 지계의 자연현상과 인류의 정신과 정서를 파괴한다는 큰 원칙만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대병(大病)·소병(小病)을 폭탄을 통한 살인으로 고치고 해결할 수 없는데서 오늘의 인류의 고민이 큰 것이다.

하늘을 우러르면 인공위성이 천체를 어지럽히고 제트비행기의 폭음과 매년 청정대기가 혼탁해진다. 지상에서 뽑아 올리는 1산화탄소, 2산화탄소는 매일매일 국토의 상공에 스모그현상을 일으키고 서울을 위시한 도시 가운데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대신 먼지와 연기를 허파에 채우고 사는 형편이다.

하늘이 찌푸려 원망하고 있고 공기속에는 불순한 기체 함께 대기의 원인이 기류가 되어 폭우와 폭설을 내리쏟기도 하고 이상기온을 일으킨다.

지계 곧 지구상에는 울창하던 수목은 고급 빌라, 콘도, 러브호텔, 골프장, 스키장에 모두 넘어지고 금수강산으로 불리우던 국토의 산과 강에는 쓰레기 오물, 화학물질, 온갖 미균이 뒤섞인 부토(腐土)가 되어 철새도 찾아 오지

6) 유너 버머 - 1998년 1월에 건물폭파, 살인, 살인미수죄로 종신형을 받음

않고 어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실정이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가는 빌딩이며 성냥통 쌓듯 세워 놓은 아파트군(群), 유원지나 위락시설이니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 못먹고 굶어죽는 사람의 수요가 더 늘어나는 모순된 이율배반적 지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로써 천계의 신명들의 원한성이 울리고 산신이 노하고 하백(河伯)의 원망, 수목과 금수의 원령들의 원(愆 = 원수가 되는 원한)이 쌓인다.

더구나 그것이 인류의 복지향상이나 문화개발을 위한 것이 아닌 간악한 이익이나 허황한 사치향락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결원(結怨)의 원왕(冤枉)과 척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음양이 합덕(合德)하고 신인(神人)이 조화(調化)해야 할 공도(公道)는 무너지고 3계부조(不調)의 천지비(天地否)의 현상이 되어 가는 것이 바로 3계의 오늘이다.

2. 唯一한 治方(치방), 解冤相生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인간대 인간의 원칙이나 국가대 국가의 원한을 넘어 선 우주 전체 호상간의 원과 한과 척과 살 속에 생활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여기에 증산이 주장한 인존사상(人尊思想)적 입지에서 이 우주 전체의 대병 소병을 치유할 처방(處方) 법방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 그 법방의 실천 이외에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음양5행의 상생(相生) 상극(相剋), 상합(相合) 상충(相沖)의 역리(易理)가 있어서 길흉(吉凶)을 가리고 또 진로를 개척하는 법방이 있어서 증산도 그 상생에 중점을 두고 공사(公事)에 임했지만 그 상생의 기저(基底)에 원칙이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선행(先行) 할 조건으로 해원(解冤)을 앞세운 것을 우리는 넉넉히 알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해준다고 해도 서로의 마음에 가려져 있는 원왕(冤枉)의 장벽이 있어서는 원인무효와 같은 결과로 형식과 가식(假飾)의 결과밖에는 있을 것이 없다.

일본의 신종교 '생장의 집(生長之家)의 교주 다니구찌(谷口雅春)는 그들의 교서(敎書)인 '생명의 실상(生命之實相)'⁷⁾에서 '너희들 천지만물과 화해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천지만물이 곧 우주의 삼라만상 천·지·인 3계 전체에 있는 생물, 무생물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독교 성서에도 예수가 한 말에 이런 것이 있다.

제단에 제사(祭祀)를 올리려할 때 형제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사를 올리라.⁸⁾

대순진리처럼 큰 범위의 이상인 상생은 잘못했지만 종교행사에 앞서 먼저 남과의 원한을 풀고 와서 올리라고 한 것은 위의 다니구찌씨와 함께 탁월한 교훈이라 할 것이다.

뒤에 해원상생의 본론부에서 상론(詳論)하겠지만 국내의 정치사정에도 그렇고 IMF의 경제파동에 대한 것도 또 정경유착 같은 일이나 형사, 민사문제 의 재판 같은 것에 너무 많은 원왕(冤枉)의 원한이 불행했던 역사와 함께 전통적으로 축적되어 있다.

이것이 모두 해소, 해산되는 해원을 성취한 후에라야 호상 생부(生扶)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해원상생이야말로 이 지구의 군생(群生)을 소생시킬 유일한 이상이자 명약의 처방이 아닐 수 없다.

3. 宗旨(宗旨)의 四단계 構造(구조)의 核心(핵심)

옥황상제 정산도주의 소제(所制)인 대순진리회의 종지를 면밀(綿密)하게 살피면 실로 3계 우주의 구성원리 그 자체라고 할 만하며 또 우주내지 개개 인간의 이상하는 삶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종지의 기술(記述) 또한 한시(漢詩) 사율(四律)⁹⁾의 구성과도 같으니 첫째 음양합덕은 기구(起句)와도 같고 둘째 신인조화는 승구(承句)에 해당된다.

7) 生命의 實相 - 生長之家(일본의 신종교) 敎主 다니구찌(谷口雅春) 著

8) 신약성서 마태복음 9:12

9) 四律(律詩) - 五言과 七言이 있는데 起·頷·頸·尾 또는 起·承·轉·結의 四聯으로 成立된다. 이 法은 絶句에도 適用된다.

다시 말하면 처음 시의 이미지(image = 영상)를 한마디 서론격으로 표현한 것이 기구(起句)라면 음양합덕이 바로 그에 해당하며 승구(承句) 곧 그것을 계승한 제2연구(聯句)와 같은 것이 신인조화(神人調化)가 될 것이다.

이제 셋째 종지인 해원상생은 전구(轉句)인 말하자면 변전(變轉)의 뜻을 지닌 어구(語句)가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의취(意趣)로 보아서도 한시의 작시법(作詩法)과 동부상합(同符相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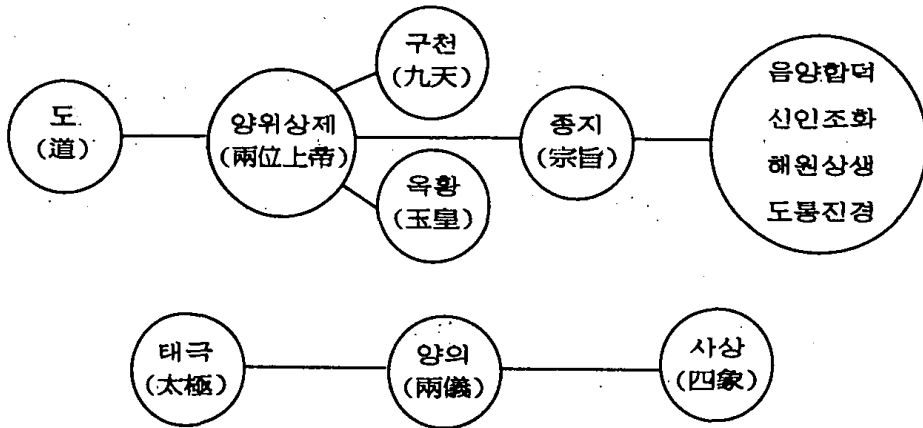
그런데 시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가 되지마는 4개조의 종지에서도 제3구 해원상생은 1구 2구가 원칙론적인 것에 비하여 행위, 행동의 방법론적임을 알 수 있으니 모든 도인내지 만인간의 유일한 행동강령이 되는 핵심적 종지라 할 것이다.

그것은 한시의 작시법에서 보이듯이 우주의 생성 발전을 표현한 음양합덕이 기·승·전·결의 기구(起句)가 되는 것을 말했지만 사실 그대로 하나의 서설(序說)로서 앞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잇따른 신인조화가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 셋째 해원상생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본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끝에 있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종지는 대순종지의 결론인 동시에 대순신앙의 구경(究竟)적 이상으로 마무리짓게 되어 있다. 이 네가지 종지는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인과(因果)관계가 있어서 그 어느것 하나가 빠져서는 안될 종지상의 중요명제인 바 그중에도 이 해원상생은 중심되는 핵(核)으로 간주하여야 하리만큼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대순의 종지를 4개강(四個綱)으로 한 것이 자연현상의 춘·하·추·동 4계절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방위의 동·서·남·북 4방이며 태극의 4상도 연상되며 근·묘·화·실(根苗花實)의 4기(四期)와도 동부(同符)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학적(學的) 논증이 되지않는 유추(類推)론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다만 다음과 같은 도식(圖式)을 얻을 수 있으니



무극·태극에서 음양양의가 생겨나고 그 양의에서 사상(四象)이 생겨나는 것과 결부해서 생각할 때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것을 느낀다.

종지의 4단구조 그 자체가 우주생성의 신비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그 4단계구조가 그것을 정신적면에서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바 그 가운데 셋째번의 해원상생이 그 핵심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多元, 多目的的인 解冤相生

세계의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의 무슨 교리보다도 대순종지의 해원상생처럼 다원(多元)하게 다목적적(多目的的)인 교리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열거(列舉)할 수 있다.

1. 인간대 인간간의 도덕기준으로
2. 자연대 인간간의 상호의존(相互依存)의 법칙으로
3. 신명대 인간간의 화해(和諧)부조의 기준으로
4. 국가대 국가간의 교류지침으로
5. 인류의 영원한 평화원칙으로

이상은 인간을 기준한 것을 기준한 적은 일 큰 일을 열거한 것인 바 인간의 일이라고 해도 주의사상이나 종교사상 상호간의 문제도 있고 또 신명세

계에서도 신명과 신명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인간만사 나아가서는 우주 삼계 전체에 걸쳐서 이 해원상생의 종지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곧 우주의 삼계가 올바른 제도에 올라 생존내지 유지, 발전하는 원칙과 원리가 이 해원상생을 두고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다고 넉넉히 끊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차원을 달리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사회를 생각하면 과거 의·식·주만을 위해 생활하던 상고시대는 고사하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20세기초와 오늘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를 비교해도 참으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계화하고 과학화한 산업사회의 다원(多元)화한 생활을 우리의 부조(父祖)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몇가지 큰분야를 실례로 들어 봐도 정치니 경제니, 문화니, 학술이니, 예술이니 하는 명사를 지닌 분야의 사상(事象)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도 20세기에 들어온 다음의 일인데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남의 술집 앞에서 하루종일 절만 해주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서 음식을 날라다 주기만 하는 인생도 있다.

민속촌에서 하루종일 베풀는 시농한 하고 사는 사람, 공장에서 작은 금속의 땀질만 하는 인생도 있다. 아침부터 가슴에 마이크를 차고 사는 사람,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이 그 자기의 하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일생을 보낸다.

이 다원적으로 분업화한 인간들에게 하나의 생활 기준(規準)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각국, 각민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종교와 사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 딱 한가지의 원리 원칙적인 사상이 있으니 ‘해원상생’, 이 하나 뿐이다. 그래서 이 지상(至上)의 종교사상을 다원 다목적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바이다.

II. 本論部 (一)

해원상생(解冤相生)이란 종지는 해원과 상생이란 두 개의 단어가 새로운 복합으로 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그래서 먼저 해원의 어의(語義)를 고찰하고 다음 상생을 고찰하게 되는 것이 순서적이며 또 그 두가지의 사상(事象)이 지닌 인과(因果)관계로도 그러하다.

그런 경위로서 해원이란 말을 고찰하면 ‘원(冤)을 푼다’는 뜻이 되고 해원상생이란 합성어를 풀면 ‘원(冤)을 풀고 서로가 생(生)한다’ 또는 ‘원을 풀면 서로가 생한다’ ‘원을 풀어야 서로가 생한다’ 등으로 풀 수 있는데 증산도조의 가르침인 해원과 상생을 하나의 종지로 합성해서 설정한 정산도주의 뜻을 살펴보면 해원의 인과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도 같아 해원과 상생은 동질의 표리(表裏) 양면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먼저 머리 속에 넣고 해원의 대상인 원(冤) 그 자체에 대한 그 유형과 본질 또는 원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서 추구해 보려한다.

1. 冤의 本質 및 類型(유형)

원(冤)을 푼다(解)고 하는 사실을 구명하기에 앞서 먼저 원의 유형을 광의적(廣義的)으로 생각해서 그 유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인과 본질을 찾아 하나하나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준비작업으로 사전(字典)적 자의(字義)부터 찾아 보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소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구석구석에 원이 따르고 척이 붙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니 인간 만사에 가위 원칙이 없는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사전(字典)¹⁰⁾ 사전(辭典)류에 나와 있는 원에 관련된 글자는

10) 字典 - 唐熙字典 日本博文館 발행
 新撰日本字典 日本博文館 발행
 詳解漢和大字典 日本富山房 발행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산만(散漫)하게 나열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대표가 될만한 것들을 가려 보았다.

원(冤) - 속자(俗字)로 위에 점이 있는 冤자를 쓰기도 한다.

원(怨) - 원래 위에 있는 冤자는 명사(名詞)로서 '원망'의 뜻인 반면, 怨자는 동사(動詞)가 되어 '원망한다'의 뜻이었지만 현재는 두가지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한(恨) - 원과 한이 한데 어울어 원한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 쓰이는 것이 상례(常例)가 되지마는 원(冤 또는 怨)이 상대적인 것이 주가 되는 것이라면 한(恨)은 자생(自生)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척(慼) - 척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순수한 우리말로 보아서 한자(漢字)가 나오지 않는데 근심(憂)과 같은 뜻의 慼자가 음동(音同)으로 차용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살(煞) - 殺자의 고자(古字)일 뿐이지만 살이 끼었다고 할 때의 한자는 이것을 쓰고 있다.

돈(敦) - 怨과 같은 뜻

구(咎) - 怨과 같은 뜻

대(對) - 怨과 같은 뜻 (동사와 함께 명사로도 쓰인다)

감(憾) - 怨과 같은 뜻

이상의 논의는 자의(字義)의 해석일 뿐 원(冤 또는 怨, 恨을 곁들인) 본질이나 또 분류된 유형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이나 한, 또는 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한다.

1) 원의 본질

원의 본질을 논하면서 먼저 전경에 나타난 중국 고대의 단주(丹朱)에 대한 한 대목을 소개한다.

원(冤)의 역사의 첫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의 원을 풀면...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해

야 되느니라¹¹⁾

이것은 중국고사¹²⁾를 인용한 증산의 교훈인 바 후세에 와서 기독교 교리의 영향인지 그 소위 에덴동산이란 가설(假說)의 장소에 아담과 이브라는 원인(原人)이 성적 교합을 한 것(따져보면 여호와란 신이 만들어 준 생리현상인데도)을 대죄(大罪)로 벌하여 추방(追放)을 시켰는데 그것을 원죄(原罪)라고 하는 것과 결부 유추해서 단주의 원을 인류전체의 원죄시(原罪視)하는 것 같은 일을 본다.

여기서 단언적(斷言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도 말했듯 양위상제인 증산·정산의 언설을 언석(言釋) 곧 말꼬리를 잡은 낱말풀이 같은 해석은 대교(大敎)를 오도(誤導)하는 잘못을 범해지기 쉽다. 말하자면 도조·도위 양위의 본의(本意), 원리(原理)가 무엇인가를 추궁하는 이석(理釋)의 방법이 아니고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집 제1집에 발표한 박(朴龍哲)교수의 단주보다 4백년 앞서 있던 치우(蚩尤)의 난때에 생겨난 원이 있으니 그 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¹³⁾ 하였는데 탁월한 의견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전경 본문에 구애되어 원한의 시조가 단주라는 것이나 요(堯)가 기변(碁變) 곧 기전(碁戰)을 가르쳤다든지 하는 일들은 역사의 고증과 방증이 있어야만 과학(종교학이라는 인문과학)적 논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기에 필자는 아예 증지에 대해서 또 교리상 난제로 여기는 양위상제 설 같은 것에 인문과학적 태도 그 가운데도 종교학에서도 일반종교학이 아닌 특수종교학의 태도로 나아가서는 과학이 아닌 신앙적 테마를 신학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취한다.

거기에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언석(言釋)이 아닌 이석(理釋)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증(師證) 곧 선사(先師) 또는 교조(敎祖)·창교주(創敎主)의 증명보다 우주자연의 도리(道理)나 이성적(理性的) 판단의 논리, 이론인 이증(理證)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취한다.

11) 전경 공사 3장 4절

12) 書經 堯典

13) 대순사상논총 제1집 p.392 본문 끝줄에서

본인이 일생 신봉하는 불법(佛法 = 부처의 진리(buddha dharm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언(佛言)에도 오류가 있을 것이고 불법 그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請行無常】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남에게의 강요나 권고가 아닌 자신의 태도를 밝히려 하는 것 뿐이다.

때문에 필자는 전경을 양위상제의 행장과 교훈의기록으로 높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것이지만 이런 원(冤)의 설명 같은 것도 증산 재세시 일반 사인(士人)내지 대중들의 입에 회자(膾炙)되던 중국의 사실(史實)로 원을 깨우쳐 가르치기에 편리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며 또 인긴(人身)을 입은 증산의 원에 대한 이론도 이 한서(漢書)인 서경(書經)과 그리고 한국의 진묵(震默), 전봉준(全捧準), 최수운(崔水雲)등의 원한의 범주(範疇)에 준수(浚巡)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원(冤)의 동기와 형성

원이라고만 했지만 원(冤)·원(怨)·척·살(煞)등속의 심리적 동기, 현실적 동기, 그 동기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기(禮記)에 사람의 근본 감정을 일곱가지로 나누었으니 칠정(七情)이라고 하는 것이다.

희·노·애·락(구(懼)로도 나와 있다) 애·오·욕(喜怒哀樂哀惡欲)¹⁴⁾의 일곱가지가 그것인데 불교 석씨요람(釋氏要覽)에는 희·노·우·구·애·증·욕(喜怒哀懼哀情欲)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이제 원을 발생론적으로 보아서 원의 기인(起因)은 이상 일곱가지 7정 가운데 무엇이 되는가 생각해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냄 곧 노(怒)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거기에 또 한가지를 들면 오(惡) 곧 미워한다는 것이 부수된다고 할 것이다.

일단 원의 과정을 성내고 미워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노오(怒惡)하는 동기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신이 남에게서 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다.

14) 七情 - 禮記에 있는 것으로 4번째가 樂과 懼의 두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반듯한 대상이 있는 원도 있지마는 상대가되는 인물이나 물질이 없어도 원이 생겨난다. 이제 이것을 분류해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 국가적 국제적인 원한

남의 나라 일보다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조선조에서만 봐도 태조의 창업에 앞서 최영(崔瑩)·정포은 같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 태종(太宗)의 왕위획득을 위한 골육간의 살육이며 내려와서 단종·세조대의 사·생6신(死生六臣)들의 원은 국가의 왕권, 정권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다.

국제적으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때의 많은 죽음과 일제 식민지하의 많은 애국열사 의사들의 원이 있다.

태평양전쟁(제2차대전)과 6·25전쟁 같은 국제적 국내적 대전란에 억울하게 죽은 원령(怨靈)은 얼마며 또 국내적으로 이승만의 독재정권, 박정희의 유신정권, 전두환·노태우의 군사정권치하에서 희생당한 망령은 얼마며 생령은 또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불행한 민족의 수난사를 이루 다 들어 말할 수가 없다.

(2) 사회적 원한

오늘까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늘진 그림자가 우리 주변에 스며 있는 것을 느끼지만 과거 봉건사회에서 멸시, 사역당하던 하천(下賤)계급과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농민들의 원이며 남존여비의 변칙된 유교사상에서 남성의 노비처럼 일생을 마친 조선여인네의 한,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반상(班常)계급의 피해자가 되었던 서민들의 한이 강역의 구석구석에 깃들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록 오늘날엔 민주사회가 되어 자유평등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도 주먹 센 자의 앞에 약한 서민들, 그 가운데도 노동자, 농민들의 원한, 약육강식의 원척이 가시어 지지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유물론자의 역사관은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¹⁵⁾라고 규정하

15) 맑스·엔겔스 經濟學說批判, 공산당 선언

여 있지마는 말을 바꾸어 '인류의 역사는 원과 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모든 종교사상이나 또 사회사상·정치사상이 인류사회의 평등화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큰 눈으로 보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절로 따르듯이 인류의 어두운 면이란 곧 밝은 면의 반영(反影)이란 것을 알 수 있으니 심천(深淺)과 농담(濃淡)의 차가 있을 뿐 인류와 함께 우주 천지와 함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3) 가정적인 원한

세계에는 모계(母系) 가족제도가 있는 곳도 있지마는 과거 부계가족제도의 남성의 가부장(家父長)적 위치는 절대군주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인권은 남성의 손아귀에 잡히어 가위 노예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남편 뿐이 아니라, 시댁(媵宅)가족 모두에게 성별과 연령을 막론하고 상전처럼 섬기게되어 있었으니 예부터 시집살이에서 생기는 고부간(姑婦間) 곧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생기는 알력과 질쟁(嫉爭)은 설 날이 없었고 시누이 울개간의 불화 또한 빼어놓지 못할 갈등을 연출했으니 여복하고 한국여성은 한(恨)으로서 생긴 화병(火病)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까지 할 정도였다.

과거 가정을 중심한 원한관계는 남성 동기(同氣)간에는 형제간 또는 부자간에 금전과 재산문제로 시비한 일은 있어도 정신적인 문제로서의 갈등은 여성의 전유물같이 되었다. 오늘의 야담같은 것에도 원혼, 원령이 등장하는 것은 대개 여성이 많으니귀신이라고 하면 여자가 많고 여자귀신이라면 머리 풀어내린 젊은 여자가 대표가 되리만큼 하고 있다.

(4) 성격적으로 생기는 원한

사람에게 따라서 내성적(內省的)인 성격과 외향적(外向的)¹⁶⁾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공격형의 사람도 있고 방어형의 사람도 있다.

모든 사물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인간이 있으면 사사건건 부정적

16) 심리학에서 인간의 성격을 內省형과 外向형으로 구분함

이고 비관적인 인간이 있다. 이 부정적인 사고의 사람은 인간만사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국가 정부와 사회전반에 대해서 또 자기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의 부모형제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자기자신에게까지 불만한 생각을 가진다.

마음 속에서 원을 만들고 한을 만들어서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데 때로는 폭발해서 파괴적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유형의 인간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제 스스로가 원한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주의공도인 태극음양의 도(道)도 함덕할 수 없고 신인 조화의 영향도 미칠 수가 없으니 이것은 상대적인 원이 아닌 자기발생적인 한(恨)인 것이다.

(5) 원의 상관관계

중국에 기서3종(奇書三種)이라고 해서 명(明)나라때 세사람이 쓴 적은 분량의 책이 있어서 필차가 소시(少時)에 본 것이 있어서 소개하지만 지금 책도 없고 지은 이들의 이름도 잊어 버린 것이 유감이다.

그러나 묘한 말들이 있어서 그 한마디를 소개하면 이런 뜻의 글이다.

하늘이 도가 있고 공평무사하다고 하지만 하늘처럼 도가 없고 편벽된 것은 없다. 그것은 비가 소용되는데 해를 짹짹 쪼이고 해가 나와야 할 때는 도로 비만 퍼부어서 모든 생물을 괴롭게 한다.

남쪽 양자강에 가면 더워서 못견디는데 북쪽 곤륜산에는 추워서 못견디게 하니 고루 따뜻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천도가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하늘을 아주 무도(無道) 비정(非情)의 존재로 타매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하늘을 큰 도둑 [大盜] 로 몰아세우는데는 그 역설(逆說)에 어안이 병병해진 것이다.

병든 노모(老母)를 공궤하기 위해 남의 집에 쌀한줌 훔친 것을 도둑이라고 잡아서 벌을 주지만 하늘은 온 고을을 망치고 곡식과 재산을 훔치는 대도(大盜)요 악행자(惡行者)다. 봄부터 시작해서 5·6월 띄약별 아래 땀 흘려서 가꾼 곡식이 영글 때만 되면 의례 바람을 불어 쓰러뜨리고 큰비를 내려 강에 떠내려 보내니 도둑 중에 상도둑이 하늘이다.¹⁷⁾

하는데 이르러는 실로 기발한 발상이라고는 해도 경악할 바가 있다. 여기서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을 고마운 존재, 더 나아가서는 신성한 것이라고 보는 소위 긍정적 태도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천양(天壤)의 차며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서 온갖 원칙도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늘과 사람만의관계가 아니라 온갖 원칙이 우주공간에 누적되어 있으니 그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찾아 보는 것이다.

신명대 신명

신명대 인간 (신명이 주체가 됨)

인간대 신명 (인간이 주체가 됨)

천계대 인계 (천계가 주체가 됨)

인계대 천계 (인계가 주체가 됨)

지계대 인계 (지계가 주체가 됨)

인계대 지계 (인계가 주체가 됨)

인간대 인간 (주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인간계의원칙 그 가운데도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의 범위는 다기 다양하다.

국가와 국가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여당과 야당

자본주와 노동자

학교와 학생

지주와 소작인

특권층·부유층과 영세민

채권자와 채무자

약덕업자와 소비자

강도·절도·폭행범인과 피해자

사기·협잡·모리배와 피해자

17) 少時적에 본 冊의 說인데 현재는 구해도 보이지 않음

불화한 부자·형제·일가친척간
 불화한 부부·불화한 고부간
 북조선과 남한·영남과 호남

이상에 나열한 원의 상관관계를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산만(散漫)하겠기로 생략한다.

그러면 원의 발생에 대한 전경의 가르침을 찾아서 본질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18)

선천과 후천은 어느 누구도 그 연원 일시를 구획지을 수 없는 것이다. 증산의 출현과 그 공사를 전후한 한 기간으로 추적해도 좋고 그 일생의 종말로 볼 수도 있으니 이런 문자를 도참(圖讖)적으로 해석해서 시한(時限)을 정하는 일 같은 것은 정상한 종교에서는 금할 일이다.

그런데 이 성훈(聖訓)에서 우리는 증산의 중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니 그것은

- 선천시대에 사물이 모두 상극(相剋)에 지배되었다는 것
- 그 상극 때문에 원한이 쌓였다는 것
- 그 원한이 쌓인 위에 맺혀서 천·지·인 3계를 채웠다는 것
- (계속된 말씀에서)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재화가 일어난다는 것

등이니 선천과 상극과 원한의 상관관계가 3각함수를 이루게 된다고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그 말의 진리를 잡아서 말로써 표현한 말의 뜻풀이나 도식으로 된 일람표를 보고 상제로 모시는 대성(大聖)의 참뜻을 아는 척하는 과오를 범하기 쉬운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천이 언제부터 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음양오행의 작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서로 생하는 것 [相生] 인지 서로 극을 해

18) 전경 공사 1장 3절

서 해를 주는 것 [相剋] 인지도 확연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눈으로 보아 좁은 소견으로서 해석하기란 참으로 난사(難事)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제2집에서 음양합덕에 대한 상론(詳論)이 있었지만 음양양의 태극 사상이 후대에 내려와 5행과 합해져서 음양 5행으로 통하게 되리만큼 된 것이 북송(北宋)의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설로서 정착된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이제 태극양의 음양5행설로 볼 때 5행 상생, 상극의 법칙은 3극, 3계가 비롯할 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또 영원히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상생 :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원소를 생해 준다.

상극 : 水극火, 火극金, 金극木, 木극土, 土극水로 극하는 것도 생하는 것과 같은 양식이다.¹⁹⁾

그러면 위의 전경의 말씀은 선천에 상생보다 상극이 극성했다는 것을 뜻하며 상극 때문에 원한이 많이 생겨서 우주에 미만(彌漫)하리만큼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후천에는 이와 반대로 상생이 더 작용하는 시대가 되는데 전경대로라면 선경세계가 되면 상극은 아예 없어지고 상생만 있게 되는 것이 이상인데 이런 것은 일반 학문이 아닌 신화상 해석으로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원한의 발생이 5행의 상극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성립상 난관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인간이 서로 극하는 곧 인간의상극관계가 원을 도출하는 동기가 된다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인간의 7정과 그러한 감정의 행동으로서 생긴 결과로 원한이 결구(結構)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9) 五行 相生相剋 - 書經 洪範이 출처

2. 解冤의 必要性 및 方法

어떤 하나의 꼬여진 일을 풀어낼 때 그것을 해결(解結)한다고 하고 어떤 궁금증 나는 일의 결론을 얻지못하다가 그 답을 얻었을 때 해답(解答)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반 사물에 대한 용례(用例)지만 종교 신앙에도 용례가 있으니 불교에서는 많은 번뇌 고통에서 해탈(解脫)하면 성불(成佛)을 한다고 하고 카톨릭에서는 죄가 있을 때 교회(告悔) 곧 참회를 하고 해죄(解罪)를 받는 행사를 교회성사(告悔聖事)²⁰⁾라 하고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해원(解冤)이 있다. 그래서 증산은 상제의 권능으로 해원공사(解冤公事)를 거행하기도 한 것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다른 민족에 비교해서 지능과 감성이 특출한 우리 한민족은 고신도(古神道)의 무격(巫覡)들의 용어로 해원굿이니 한 굿의 행사가 있었고 또 살풀이(解愁)의 노래가 있다.

어려운 문제에 해답이 필요하고 복잡한 사건에 해결을 보아야 하듯, 또 성불을 위해 해탈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 해죄를 하여야 하듯이 원과 한이 있으며 그것을 풀어 없애야 할 것이니 그것이 해원이다.

대순사상의 종지 셋째번인 해원상생이 바로 이에 대한 총결론이니 해원해야 상생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상생의 세계가 요구된다면 먼저 해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유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위에서 소개했지만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고 세이쥬노이에(生長之家)에서는 '너희들 천지만물과 화해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국종교의 교의에는 그 결론적인 '서로 잘산다 [相生]'하는 말이 들어 있지 않은 약점이 있다.

바로 해원의 필요성은 해원이 선행되어야 상생을 한다고 설정한 대순의교의가 모든 종교의 교의 상부(上部)에서 상생의 대도(大道)를 제시하는 것이다.

20) 告悔聖事 - 카톨릭 7성사 中의 하나인데 죄가 있으면 告悔室에서 신부앞에 참회하여 解罪받는 行事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해원이 필요한가를 실례를 들어 생각해 본다.

1) 健康한 肉體와 健全한 精神을 위하여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원령(怨靈)이 씩은 사람이나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 남과 사이에 적이 있는 사람은 건강할 수도 없고 오래 살수도 없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자면 정신이 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해있다. 더군다나 기계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서 누적한 스트레스는 온갖 병을 가지고 온다.

잘 먹으면 건강할 것 같지만 못먹어도 성격이 원만하고 명랑하게 웃고 사는 사람에겐 병이 없다. 그렇다고 속에서 나오지도 않는 웃음 억지로 웃을 수도 없고 웃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즈음 물질과 현실의 나라 미국에서도 대체의학(代替醫學)²¹⁾이라고 해서 한방에 근거한 약초와 채실, 호흡법과 기공 그리고 정신요법 같은 것이 대유행이라고 듣고 있다. 동양의학으로의 회귀 그 원시반본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 家庭의 和平과 이웃간의 和睦을 위하여

해원을 멀리 신과의 일이나 국제간의 일을 따지기에 앞서 내가 사는 가정에서부터 살펴봐야 한다.

부자간의 불화, 모녀간의 불목, 형제간 자매간의 질시, 질투로서 생기는 가출, 비행, 범죄의 청소년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가는데다가 부부간의 불륜, 혼외정사는 또한 얼마며 남편살해, 처자살해의 범죄까지 격증하는 시대 이 세기적 대병(大病) 소병(小病)에 해원이란 구급약이외의 방문(方門)이 없다.

어떤 단체에서 가정평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선행해야 할 것이 해원이라는 것이 없으니 그것이 탁상공론이 되고 말 것이다.

21) 代替醫學 - 지금 미국서 일고 있는 것인데 正規의학으로 못 고치는 病을 民間요법이나 특수치료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비유하면 몸에 질병이 있는데 보약만 먹인다고 해서 영양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병을 고쳐야 하듯이 가정의 단란한 융합에 먼저 해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또한 이웃사이의 생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말로서는 이웃사촌이니 정다운 이웃이니 하지마는 돌아서면 서로의 경쟁심속에서 원망이 생기고 척이 붙어 있으니 이것을 풀어내고 걷어 내는 것이 무슨 복지사업보다도 더 소용되는 것이다.

천평 대지에 건평 5백평의 호화저택에 사는 국가 지도자가 있다고 하자. 아무리 그 아래 달동네의 서민을 보고 같이 손잡고 단결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해봐야 달동네 12평, 10평의 주민들에게는 불신감과 괴리감 거기에 저항심까지 겹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청빈(淸貧)이 미덕이던 조선조 선비들, 청백리들을 배움직한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3) 國家와 社會의 安定을 위하여

이것은 이 명제 하나만으로도 방대한 논문이 될 것이므로 간단한 개설만을 피력할 뿐이다.

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평등이란 종교사상 또는 사회사상의 이상은 될지언정 그 실천은 어려운 것이다. 어렵다기보다 태양이 있기에 음지가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조차 그들의 평등이 불평등의 평등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 각개의 인권과 생존권등이 강한 자에 의하여 약한 자가 당하는 피해 내지는 박해가 끊일 수 없으니 증산이 전경에서 말씀한대로 그것이 선천시대의 특징인데 그러한 극(劑)의 상태 가운데서 원(冤)이 생겨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주 3계에 충일(充溢)하다고 한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권의 원한,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증강의 구호아래 노동을 착취당한 근로자들의 원한, 사회재단의 비리 속에 억압당하던 교직원과 학생들의 원한 등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뒷그늘에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제공하고도 옳은 보수는 고사하고 IMF체제 아래 감원당하고 수입이 축소된 사람들의 원한이 공간에 가득하다.

뿐만아니라 남북이 분단되어 반세기를 별리(別離)한 가족들을 만나기는 고사하고 서신 한 장 수수하지 못하는 이산동포들의 원한이 가시어지지 않고는 안되는 민족의 대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기에 북녘땅 붉은 지역에서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사이비정권 아래 반세기를 노예처럼 혹사당한 결과가 식생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아상태가 되어 있는 5천년대의 대원한 척과 살, 6·25 남북전쟁의 쌍방의 재산상 손실과 생명의 원한을 이제야 글자 그대로 풀어 흘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니 남북간 다가올 통일조국의 앞날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해원상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4) 解冤의 方法

그러면 이제 본장(本章)에서 가장 요체(要諦)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원하느냐하는 방법론적인 결론이다. 이것을 전경을 통한 구천상제 곧 증산의 금구옥언(金口玉言)²²⁾을 통해 그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하느니라.²³⁾

진목이...김봉곡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서양에 가서 문화개발을 하였느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선경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²⁴⁾
학교를 널리 세워...천하를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니²⁵⁾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니라. 동일한 50년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원하리오.(다음 최제우와 김경신 두사람 중에 누구를 해원하리오 하는 말씀이 있다.)²⁶⁾

이상 전경의본문 몇절을 소개하였는데 본론과는 관계없는 말을 한마디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먼저 사족(蛇足)을 붙인다. 그것은 전경의 본문이 너무 경전으로서의적절한 서술이 못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 것인데 어떤 종교처럼 한획 한점도 틀림이 없다고 할 경지까지 가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

22) 金口玉言 - 성인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23) 전경 공사 3장 4절

24) 전경 권지 2장 37절

25) 전경 교운 1장 17절

26) 전경 교운 1장 20절

경전임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구절은 예로 들면

· 해원공사 · 해원시대란 말이 꼭 적절한 것인가.

· 해원시켜 - 다른데는 꼭 해원한다고 해 있는데 진묵에게 대해서는 문법 사역형(使役形)인 시켜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해원하여가 문법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 삼계의 역사는 역사(役事)인지 역사(歷史)인지는 몰라도 두가지 말 모두가 증산 재세시에 쓰던 한자숙어가 아니고 전자는 기독교가 썼고 후자는 신문명이후 일본인이 history를 역사라고 번역한 후에 사용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는 史記라는 말이 오늘의 역사와 같이 사용되었다.

가장 잘못된 것은 학교를 세워...하는 대목에 '신인의 해원을 풀려는 것' 이라는데는 아연질색해지는 것이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해원을 푼다는 것은 해원을 도로 풀어 원한이 되게 한단 말이니 가위 불경(不敬)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 전경에 나타난 해원에 대한 일이 해원공사로서 상생시대를 열고 또 사건마다 해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원칙론만 나타나 있고 방법론이 확연하지않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말을 결부 인용하여 해석하면 잘못 성의(聖意)를 상하게 할 혐(嫌)이 있기에 이석(理釋)²⁷⁾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론(試論)을 펴는 바이다.

그렇다고 함부로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는 방자(放恣)함은 대도(大道)의 휘방(毀謗)만 되는 일이니 증산 구천상제의 원의(原意)를 일탈(逸脫)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해원의 방법이 대도(大道)신앙의 방법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종지가 제시하는 4강목, 곧 그 4단계의 행로를 올바르게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해원과 상생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 다시 설명할 필요조차 없지만 첫째 태극양의 곧 음양의 합덕사상에 철저할 것이다. 음양이 융화하는 도인에게 무슨 은원(恩怨)이 있으며 또 희로(喜怒哀)가 있겠는가? 다만 합덕 속에 새로운 조화(調和)와 희망과 융합이 일

27) 理釋 - 言釋의 반대되는 말, 표현된 말의 내용을 이론으로 해석하는 방법

을 뿐이니 원한은 눈녹듯 사라지고 상생이 새봄의 싹처럼 솟아 오를 것이다.

둘째는 신인조화란 말씀 그대로다. 스스로의 내재(內在)한 신명이든, 3계에 변만(遍滿)한 제신, 제령이든 그 신명이 인간과 조화되어 조화(造化)를 일으키면 춘하추동 4계가 순리로 넘어가듯이 자연 해원상생의 3단계 세계가 전개될 것이 자명(自明)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해원의 방법론이 곧 대순사상의 종지에 있으며, 있다고 할 것만 아니라 그 종지 자체가 해원의 법방이요, 비방(秘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순서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첫째가 음양합덕이고 둘째가 신인조화인 바 바로 이것이 우주전체에 가득찬 원을 해소, 소멸케 하는 근본적 방법이다.

먼저 태극양의 곧 음과 양의 합덕 앞에는 백년 묵은 원한도 눈녹듯 사라진다. 그것을 어떤 부부의 가정생활의 체험담에서 듣고 느낀 바가 있다.

원래 신경질의 체격과 성격을 가진 부인이 결혼후 한 3년되니까 남편의 단점이 자꾸 눈에 띄이고 따라서 시어머니와의 불화가 잦아졌다. 이 시어머니는 본래 대순의 신도로서 도장의 시학(侍學)²⁸⁾공부도 일심히 하고 며느리에게도 권해서 교대로 하기도 했는데 큰 영험이 없다고서 어떤 서양식 종교를 믿기 시작하여 며느리에게도 강권을 해서 일요일마다 의식에 나가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 젊은 부인이 병이 나기 시작했다. 두통, 소화불량, 심부전 증등의 증세인데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만 했다. 남편과의 성관계조차 기피하는데 그때마다 국부에 좁쌀같은 종기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도 병원에 가니 성병이 아니고 신경성이라고 했다.

그후 이 부인은 마음을 고쳐 먹고 다시 대순도장에 나아가서 공부를 시작했다. 송주(誦呪)기도 중에 영험이 일어났으니 갑자기 가슴에 광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서 가슴 속의 현상이 눈앞에 선명히 나타난다. 붉은 색과 푸른 색의 두 덩어리가 서로 따로 돌면서 속이 터질 듯 뜨거운 것이 이 소리와

28) 侍學 - 옛날 官中에서 임금을 모시고 강론하던 것을 侍講이라고 하듯이 天主를 모신(侍天主) 공부라서 侍學工夫라고 한다.

함께 한데 어울어져 한덩어리가 되어 회전하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시원해지는 것이다.

아. 음양합덕, 음양합덕하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며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룩 흘렀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풍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며 함께 웃는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어찌면 그렇게 보기 좋은지 처음 만나 연애하던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 나고 지내온 원한이 모두 내 잘못에서 일어난 것인데 남편이 병약한 나를 얼마나 돌봐주었던가 고마움으로 가슴이 흐느껴졌다. 시어머니도 생각하니 고맙기만 하다. 말 안듣는 며느리를 누가 그만큼 생각할 것인가 마음 속에서 다른 종교에 가던 것을 두고 함께 대순진리로 돌아오도록 빌었다.

태극 음양이 따로 돌면 원한이 되는데 함께 돌면 합덕인 것을 체득(體得)하고 나니 세상이 자기 천지가 되어 실로 하늘보다 땅보다 내가 가장 높다는 상제의 인존(人尊)사상이 마음에 와닿으며 양위상제의 홍은(鴻恩)이 내 몸에 함께 하는데 내 마음이 원망을 만들고 병을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을 얻은 다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몸에 질병이 저절로 없어지고 세상이 광명천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신인조화에 대해서도 경험한 도인들이 있지마는 혹은 허령도수(虛靈度數)²⁹⁾로서 오는 일도 있기 때문에 예화(例話)를 소개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관상(觀想)을 통해서 신비한 기(氣)를 얻으면 신과의 원한도 인간사회의 원척도 다 해소되는 것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는 것만 말해 둔다.

그러기에 지적(知的)으로 이론을 추구하는 작업이 사실은 도인의 심도(深度)있는 신심의 보조가 될 뿐이고 오직 종교에는 신앙심이 첫째조건이 되는 것이니 해원의 방법은 종지를 구심으로 하는 신심 그 자체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29) 허령 - 공부하는 중에 완전한 開眼이나 靈通이 아니고 虛像에 현혹된 상태를 말한다.

3. 相生의 意義

먼저 상생이란 말뜻이 소용되지만 그에 앞서 생자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사전(字典)적 풀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자가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1. 살다(죽음의 반대) 2. 살리다(살다의 타동사) 3. 낳다(산모가 출산한다) 4. 나다(아이가 나다) 5. 태우다(配, 삼신이 아이를 태어준다. 아이가 태어난다) 6. 비롯하다(生起) 7. 일으키다 8. 되게 하다(造生) 9. 만들다(作) 10. 사는 작태(生態) 11. 살아 있는 동식물(生者) 12. 커가다. 자라다(生長) 13. 목숨(生命) 14. 성하다(繁盛) 15. 붓다(增殖) 16. 익지않다(未熟, 生食) 17. 칭호(小生) 등. 그 가운데 상생의 생은 둘째번 살리다의 뜻으로 풀이 할 것이니 5행 상생의 하나인 水生木의 경우 물이 나무를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물이 나무를 살린다 곧 살게 해준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相生의 말뜻을 정의내리면 그것은 서로 살린다는 말밖에 달리 풀 수가 없으니 서로 낳는다고 하든지 서로가 산다(각자대로)고 해서는 이의 본뜻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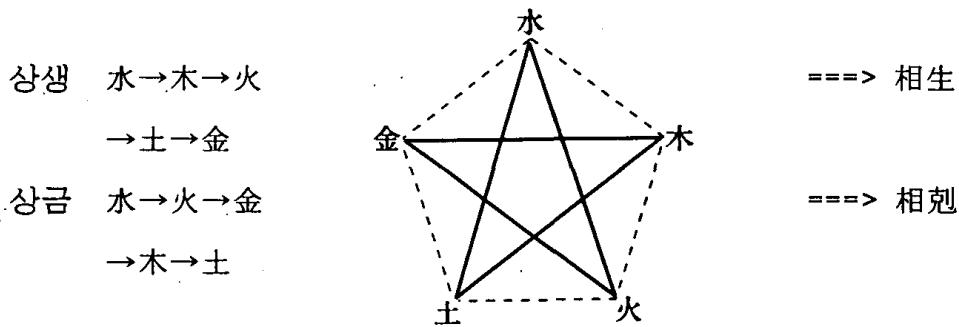
상생이란 말은 음양5행(水·木·火·土·金)의 상생·상극의 원칙에서 생긴 말이기 때문에 이 5행사상을 완전히 요해(了解)하고 그 작용하는 바 상생·상극의 작용의 묘의(妙意)를 터득(攄得)치 못하고서는 수박겉핥기의 한속어사용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5방(五方)·5계(五季)·5색(五色)·5장(五臟)·5미(五味)등을 곁들여 소개하는 바 일체의 3계 삼라만상 유형, 무형의 생물, 무생물이 모두 5행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소위 역학이라고 하는 복술(卜術)을 위시하여 의술(醫術), 천문, 지리, 기후, 계절등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인 것이다.

五行相關圖30)

五行	五方	五季	五色	五音	五聲	五臟	五官	五感	五味	五氣	五常	五星
木	東	春	青	角	(牙音)	肝	目(視)	酸	雨寒	仁	歲	(木星星)
火	南	夏	赤	徵	(舌音)	心	口(味)	苦	暘燥	禮	熒	(火星星)
土	中央	季末	黃	宮	(喉音)	脾	膚(觸)	鹹	燠熱	信	鎮	(土星星)
金	西	秋	白	商	(齒音)	肺	鼻(嗅)	辛	風風	義	太白	(金星星)
水	北	冬	黑	羽	(唇音)	腎	耳(聽)	甘	寒濕	智	辰	(水星星)

이 5행의 상생 상극을 다음과 같이 도해(圖解)하면 일목요연하게 알기 쉬워진다.



생·극외에도 12지(支)를 응용한 합(合)·충(衝)·형(刑)·해(害)³¹⁾와 같은 법칙이 있지만 본고에는 별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는 상생은 두가지의 상대되는 것이 주고 받고 하는 형식의 생부(生扶)가 아니다. 물이 수목을 도와주면 수목은 불을 일으키고 그 불의 재가 쌓이면 흙이 되고 흙에서는 온갖 금속들이 감추어 있고 옛말 그대로 금생여수(金生麗水)³²⁾ 곧 금에서 맑은 물을 생한다는 것을 예부터 믿어 온 것이다.

30) 五行圖 - 醫書나 陰陽書에 소개된 것을 필자가 取捨하여 편성함

31) 生剋合冲刑害 - 河洛理數·淵海子平·卜筮正宗等 많은 易書에 나와 있다.

32) 白首千字文의 한 구절

이것을 자연과학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과학적으로 보아서 이 사상이야말로 하나의 공동체 형성의 대원칙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이씨를 도와주면 이씨는 박씨를 도와주고 그 박씨는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가장의 딱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상생사상이니 한 나라가 모두 이런 생각으로 생활하는 그것을 선경세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양위상제의 이상이 바로 그것이다.

상극으로 맺혀진 원(冤)의세계가 해원(解冤)이 되었다고 지상선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상생이 지닌 종교적, 사회적, 세계적, 우주적 의의가 지대(至大)한 인간생활의 대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타종교와 비교하여도 그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³³⁾느니 이타(利他)의정신으로 인과법을 가르쳐서 불국토를 이룩한다³⁴⁾느니 하는 것보다 가장 설득력있는 교의를 체계화한 것이 해원상생이 아닌가 하는 바 이야말로 새세기를 맞는 세계인류에게의 메시지라고 할 것이다.

4. 解冤과 相生の 相關關係

해원상생이 하나의 복합어가 도주 정산의 손으로 종지의 하나로 설정되기 전 도조 증산이 두 개의 독립된 단어로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증산의 법설이 이미 이것을 예지하여 누차에 걸쳐 이 두가지 사상(事象)의 연관된 상관 관계를 설명하였으니 그것을 찾아 보려 한다. 그것은 후인에게 해원상생이란 하나의 종지적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동시에 결정적인 당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³⁵⁾

33) 기독교 주기도문에 있는 말

34) 불교의 이상

선천의...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창생을 건지려는...36)
 상제께서...명부의 상극도수를 뜯어 고치셨도다. 이로써...신명과 창생이
 상생하게 되었으니...37)

이 밖에도 몇군데 ‘상생의 도’란 말이 나오지만 대동소이한 뜻이다.

해원을 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산이 상제의 권능으로서
 행하는 단계적인 그리고 정석(定石)과 같은 코스인 것을 전경은 교시하고
 있다.

때문에 원한에 선행되는 것이 상극이 되는 반면 상생에 선행되는 것은 해
 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상극 ===> 원한 ===> 해원 ===> 상생 ===> 선경세계완성

이렇게 볼 때 이 해원상생의 상관관계는 불가분리의 것인 동시에 선경세
 계건설이 곧 상생의 길이며 그것이 곧 대순진리 그 자체라고 보아서 틀림없
 다고 할 수 있다.

III. 本論部 (二)

종교의 교의로서 과학적으로 천착하든지 나아가서 종교신학적으로 고구하
 든지 그 태도는 늘 두가지로 구별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언석(言釋) 곧 언
 설이나 문자에만 구애되어 말꼬리를 잡고 해석해 나가면 자칫 훈고(訓誥)적
 으로 국축(蹶縮)되어 옹색한 것을 면치못하는 동시에 원화자(原話者)가 전달
 하고 싶은 의취(意趣)를 완전히 전하지 못하는 혐(嫌)이 있다.

그 반면 이석(理釋)의 방향은 그 문자의 뜻 곧 그 이론이 무엇인가를 찾
 으려는 태도로써 원전(原典)인 경전을 토대로 하여 많은 보조학문을 동원하
 여 너무 자구(字句)의 부합에 치중하지않고 원전의 원의(原義)를 부연(敷衍)

35) 전경 공사 1장 3절

36) 전경 예시 6절

37) 전경 예시 10절

전달하는 것이 된다.

본고는 후자의 태도로서 집필되는 것인 바 이 본론부(二)에서는 본문과 연관이 깊은 보조학문의 동원으로 주관적, 객관적인 고구를 시하려 하는 바이다.

1. 五行易學으로 본 해원상생

역학이라고 하면 아는 바와 같이 4서3경(四書三經)의 하나인 주역(周易) 곧 역경(易經)에 있는 64괘(卦)를 해석하여 음양변화의 원리와 신인교감(神人交感)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전한(前漢)의 무제(武帝)때 정립이 된 것이다.

맹희(孟喜)나 경방(京房)³⁸⁾같은 이들이 천문(天文)과 치정(治政)이 평행한다는 주장으로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을 제양(提揚)하여 역서(曆書)와도 결부시켰으니 이로써 후세에 역술(易術)로 발전하여 인간만사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복서(卜筮)의 원리로 정립되었다.

원(元)·명(明)·청(淸)대로 내려오면서 복서정종(卜筮正宗)·역해(易海)·역림(易林)³⁹⁾·하락이수(河洛理數)·연해자평(淵海子平)·명리정종(命理正宗)⁴⁰⁾등 많은 술서(術書)가 나와 그의 연구 또는 시술(施術)과 함께 민간인에게 하나의 신앙만큼이나 보급되었었다.

복서(卜筮)를 할 경우 서죽(筮竹)이나 척전(擲錢) 또는 솔잎 등으로 송주(誦呪) 기도후에 육효(六爻)를 얻어 상괘(上卦)·하괘(下卦)로 작괘(作卦)한 다음, 법에 따라 세효(世爻=주체)와 응효(應爻=객체)를 설정한다.

괘 자체에도 본괘(本卦)에 변괘(變卦 또는 之卦)의 변화가 있지마는 생신(生神)과 부신(扶神), 기신(忌神)과 구신(仇神)의 작용이며 세신(歲神) 월장(月將, 月令)과 일진(日辰)의 생·부·기·구(生扶忌仇)적 작용등 천변만화의 변역을 사전에 예지·예견하는 것이 역술 곧 복서인 것이다.

38) 孟喜·京房 - 주역이 원래 卜筮를 위한 卦의 작용을 풀이한 것이라는 說도 있지만 前漢때 맹희·경방등에 依해서 方法論的으로 정립되었다 함.

39) 卜筮正宗·易海·易林 - 易學서적

40) 河洛理數·淵海子平·命理正宗 - 命理學 서적

생·극 외에 합·충·형·해(生剋合衝荊害)등의 작용과 6수(六獸)⁴¹⁾와 6친(官鬼·父母·兄弟·世我·妻財·子孫)의 영향과 천을귀인(天乙貴人)·입묘(入墓)같은 것의 응용등 실로 1억2천종 이상으로⁴²⁾ 변화하는 것이 역점(易占)이다.

그러나 이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면 가위 무한정이지만 한말로 끊어 말하면 상생·상극 곧 생극(生剋)법이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증산이 선천은 상극의 시대였지만 후천은 상생의 시대가 되어 선경이 건설된다고 하는 대이상으로 대도(大道)를 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소개한 5행 복술(卜術)의 방법이 다 옳은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고 또 아주 미신적인 행위라고 거들떠보지 않는 이도 있어서 가부의 결정은 아무도 내리지 못하지만 다만 동양 최고의 철학 사상인 역(易)에서 뺀어 나간 방술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 5행사상이 역술뿐만 아니라, 의학(醫學) 명리학(命理學=사주보는 법) 상학(相學=인상, 수상, 골상 등) 풍수(風水) 지학(地學)의 양택(陽宅=집터) 음택(陰宅), 연길(涓吉=擇日)등은 물론 동양의학에 영향을 주고 그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학에 생극하는 5행의 작용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병증의 진단과 처방 약품이 모두 5행 생극을 기저로 해서 실시된다.

위장이 나빠진 것은 먼저 비위가 토니까 木극토로서 계절로는 봄기운이 좋잖고 간장(肝臟)의 활동이 너무 강해서 또 木극토가 되고 신(酸) 음식을 너무 먹는 것도 木극토가 되어서 병이 생긴다.

火생토로 위장과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뜸(灸)을 뜨는 것이 아주 좋은 火생토가 된다. 붉은 빛의 음식 더운 음식과 포도주 같은 알콜성분의 음료를 섭취하면 좋다.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의 치료법이니 다른 모든 장부나 부위가 서로 상생 상극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동양의학의 근본이다.

41) 六獸 - 青龍(東)·朱雀(南)·白虎(西)·玄武(北)·騰蛇·勾陳(中央)

42) 易術은 易의 術法이니만큼 變易하는 天機를 살피는 法方인데 대충 계산해서 1억 2천정도일 뿐 실은 몇억종류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 宇宙 생기고 六爻 점(易占)을 쳐서 꼭 같은 경우는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고 볼 것이다.

심지어는 꿈에 불이 나는 것을 보면 심장이 충격을 받은 것이고 물에 빠진 꿈은 신장(腎臟)이 허한 것, 나무가 말라보이면 간장이 나쁜 것으로 풀이 되는 것이 모두 5행 생극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⁴³⁾

위의 일람표에는 없지만 웃음(笑)은 간장(肝-木)에 속하고 성냄(怒)은 심장(心-火)에 속하고 슬픔(哀)은 폐장(肺-金)에 속하고 근심(愁)은 신장(腎-水)에 속했다고 하는 것과 얼굴의 색상(色相)을 보아서 병을 진단하는 관형찰색(觀形察色)의 방법도 있다. 얼굴이 누르면 위병, 붉으면 심장병, 푸르면 간장병, 검으면 신장병, 창백하면 폐병으로 보는 것 따위가 이에 속한다.⁴⁴⁾

2. 因果律적으로 본 解冤相生

인과률이란 자연률의 반대가 되는 법칙의 개념이다. 자연률이란 관점은 우주의 삼라만상 곧 자연현상이 바로 자연 그대로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봄되면 꽃피고 꽃이 피니 벌떼가 날아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인과률로서는 봄이 있었기에 여름이 있고 꽃이 피었기에 벌이 찾아 오는 것이 원인 있어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니 원인결과의 법칙 그것을 인과법이라고 한다.

이 두가지를 광의적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협의적으로는 구별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할 때 길을 가면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여 자연률로 보면 그뿐인 것을 길이 있으니 넘어진 것이 아니냐고 해서 길이 있었다는 자체를 원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따져보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개연성(蓋然性)에 속하는 일일 뿐, 넘어진 사실에 원인제공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률이 아닌 자연률이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해원상생의 종지는 자연으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자연률의 성과가 아닌 상제의 공사(公事)에 의한 해원으로서 이루어진 인과률이란 것

43) 素問靈樞經 上海印書館

44) 素問靈樞經

이 확실이다.

이 인과률에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다.

因(原因) ==> 緣(補助原因) ==> 果(結果)

말하자면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무슨 결과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에 보조원인이 부수될 때 결과가 생기는 것이니 그것을 연(緣)이라고 한다.

이제 해원상생을 인과법으로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과률의 법칙이 도로 무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相剋 ==> 冤 ==> 解冤 ==> 相生

굳이 이 과정(過程)을 인연법에 결부해서 생각할 것은 없지만 원을 하나의 인(因)으로 볼 때 해원이 보조원인인 연(緣)이 되어 상생의 과(果)를 얻는다고만 보면 너무 시각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상극하여 원이 생기고 그 생겨난 원을 해원하면 상생이 된다는 4단계의구성, 이것이야말로 인류구제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법칙이며 법방이 아닐 수 없다.

3. 神 · 人 · 自然과의 三角函數(함수)的 解冤相生

신명과 인간 그리고 자연환경의 세가지를 천 · 지 · 인 3극, 3재라고 바꾸어 말해도 뜻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기는 신명과 신명사이, 사람과 사람사이, 그리고 자연현상 중에서 모든 생물 상호간의 원한척살이 거듭거듭 쌓여서 우주에 가득하다는 것은 전경에서부터 말한 것이어서 다시 말할 것조차 없는 사정이다.

역시 같은 것을 다시 논하는 것 같지마는 여기서는 형이상화적인 차원에서 신명과 인간, 또 신명과 자연, 인간과 자연의 삼각함수적인 상관관계에서

증산 상제께서 가르친 해원상생의 사상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바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중점으로 논의하려 한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의 논의가 되면 무조건 형이상적으로만 생각하여 일반이 볼 적에는 너무 신화(神話)적으로 되기 쉽고 또한 지나치면 신비적인 면으로만 흘러서 추상적인 데로 치우쳐지기 쉽다. 지계(地界)라고 하면 더 통용될 것이지만 특별히 자연과의 관계를 들어 말하는 것은 형이하적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한 것임을 말해 둔다.

먼저 신명계 신계의 일을 생각해 본다. 어떤 종교에서는 천당이란 큰 당우(堂宇)에 한분의 주재신을 받들어 모신 곳에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서양의 평등사상과 자유활동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⁴⁵⁾

어떤 종교는 극락에서 생전의 업과 공덕에 따라 상·중·하로 구별하고 그것이 또 3등급으로 나누어진 9품(品)의 자리에 앉아서 복락을 누린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⁶⁾

유교는 이런 내세(來世)에 대한 기록이 없는 대신 하늘과 신명을 가르치고 그 뜻을 받들고 외경(畏敬)할 것만 가르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종교들은 낙원과 함께 악한 자가 가는 곳 지옥을 설하고 있어서 이승에서 닦은대로의 보응을 받는다고 하여 있다.

그러나 수많은 고대·근대·현대의 전쟁이나 순국(殉國)·순의(殉義)·순교(殉教)한 선령신의 원한이나 억울함, 부모와 남편을 위해 죽은 효자·효부·열녀들을 신원(伸冤) 해원한다는 교의는 대순사상밖에 없으니 이것은 세계 종교계에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주 정산의 교설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사후의 신명계에도 인간 세계처럼 고루거궤(高樓巨闕)도 있고 3간두옥(三間斗屋)도 있어서 생전의 공덕에 따라서 호화생활을 하고 또 빈궁한 생활을 하는 것이 금생의복록과 같은 것이라⁴⁷⁾고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타당하고 훌륭한 교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45) 유대교 기독교의 천국은 만인 공락(共樂)의 광장처럼 되어 있다.

46) 불교 미타3부경에 나와 있는 극락 연화대의 정경

47) 太極眞經중에 있는 정산의 교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저승 신명들이 아닌 원과 한에 사무쳐서 중유(中有)⁴⁸⁾에 떠들기도 하고 원신(冤神)이 된 선령들을 위한 해원의 길을 트신 양 위상제에게 제신과 중생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신명과 인간의 사이가 원칙으로 막혀져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주 3계의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 그 신인간의 원한을 타개하는 해원 이야말로 신의 해방인 동시에, 인간의 해방이며 나아가서는 3계 전체의 해방이다.

인간과 인간간의 결원(結怨), 이러한 막힌 장벽 앞에 인류의 평화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행복된 생활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속에서 신과 신과의 해원이나 신과 인과의 해원을 생각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모든 인간들, 더구나 세계일가가 되어가는 오늘의 추세에서 백색인종이나 흑색인종을 막론하고 인간가족으로서 신 세기의 신세계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가 부하(負荷)된 자각 아래 상제의 해원공사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해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큰 과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머리 위의 하늘과 발 아래 땅덩이 그리고 그 속에서 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현상의 해원이 없고서는 인류의 항구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류가 살기 위해서 뽑아 올린 공장굴뚝의 매연(煤煙) 속에 1산화탄소, 2산화탄소가 청정하던 대기를 지옥의 유황불처럼 오락케 하고 있으며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또 나아가 생산공장의 배수(排水)에 온갖 극독성 화학물질이 하해(河海)를 오염하여 어족을 멸살시키고 드디어는 찬물 한모금을 마음놓고 마시지 못하는 인계가 되어버린 딱한 사정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대자연과 인간의 화해, 해원이 있지않아서는 자연의 멸실함께 인류의 멸망이 함께 올 것이니 우주 3계 공멸(宇宙三界共滅)의 비운 비겁(否劫)을 피하는 길은 상제의 해원공사와 모든 인간의 해원과 상생의 실천밖에는 길이 없다.

48) 망령이 저승에 안주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 中陰·中有라고 한다.

모든 식물은 깨끗한 산소를 토해내고 모든 인류는 식물에게 거름과 물을 주어야 한다. 모든 인간이 하해를 깨끗하게 보호하면 하해는 어류와 해조류를 인간에게 제공할 것이니 이것이 오늘의 21세기가 할 수 있는 인류의 해원공사인 것이다.

우리가 매연없는 하늘을 만들면 일월성신이 제대로의 빛을 낼 것이며 우리가 대지를 비옥케하면 대지는 우리에게 쌀과 밀과 채소와 과실을 제공해 줄 것이니 이것이 해원이오, 상생이다. 삼계가 공존공영 상부상의하는 선경 세계의 건설이 아닐 수 없다.

여기 대한 근본문제가 있다. 그것은 동양인의 사유방법은 자연 그 자체가 숭경(崇敬)의 대상이었다. 하늘(天)을 신격화하고 땅 또한 그러했으며 산에는 산신 물에는 하백(河伯), 목신(木神), 암석신(巖石神)등 모두가 신적존재든지 아니면 신명이 깃들여 있다고 믿어 함부로 파괴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경 예배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현실적으로만 받아들여 모든 것을 인간의 종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인은 천체나 산악, 해양과 하천 그리고 대지(大地)가 모두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지금도 무슨 산정(山頂)을 정복한다 자연을 정복한다는 서구식 만적(蠻的)언사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을 대한다.

이렇게 자연과 대항해서 싸워 정복한다고 한 것을 개발이란 이름 아래 자행한 그 많은 원한을 풀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 상생한다는 큰 진리를 다시 터득하여야 할 것이다.

4. 人間的 社會生活과 解冤相生

해원과 상생 - 어울려서 해원상생의 이 위대한 종교사상이 3계의 주인격인 인간에게 있어 현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세기적 과제라 할 것이다.

80년전 제정러시아를 전복하고 공산주의의 소비에트공화국연방을 수립했던 공산당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그들의 선언문에서 외쳤지만 그 정부가 3/4세기가 안되어 끝장날 줄은 그들도 몰랐고 세계도 몰랐다.

그것은 결원(結怨)할 줄은 알아도 해원할 줄을 모르고 방법도 없었으니 필연적인 역사의 결과였다.

그러나 사랑을 부르짖는 기독교나 자비를 고조하는 불교, 인의를 제창하는 유교사상이 오늘에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은 투쟁이 아닌 상생의 원칙이라야만 인류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장·절에 따라서 말한 바 인간이 있는 곳 인간이 사는 집단사회의 1대원칙이 해원상생이라는 것을 고조했지만 실로 21세기를 영도하는 세계사적 지표가 바로 이것일시 분명하다.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가장 첫단계인 가정생활에서부터 살펴보면 한가정에 서로의 원한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파멸한다. 먼저 그 원한을 풀고, 그리고 상생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가족 그 가정은 그로서 종말을 고할 것이 자명(自明)하다.

나아가서 이웃간에(요즈음은 반조직이 있어서 형식으로라도 제일 가깝다) 역시 해원상생의 정신 아니면 서로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으며 또 나아가서 한 취락(聚落)⁴⁹⁾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고매한 사상이 가족이나 부락의 화합 단결에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오늘의우리 사회에 누적된 원한이 언제 한번 시원스레 청산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5천년 단군 이래의 쌓인 원한이 그 얼마인지 일일이 매거(枚擧)할 수 없으니 멀리서 두고라도 근세에 와서 쌓인 원한만해도 부지기수(不知其數)인 것이다.

증산이 전경에서 예시(例示)한 것은 진묵(震默)·전봉준·최수운 같은 종교적 인물이 자주 등장하고 임진왜란의 원한도 자주 들어 말씀했다. 그 반면 당시에 당면해있던 한일합병의 침략이나 3·1운동의 순사(殉死)같은 일은 나오지 않는데 처음 증산천사공사기(甌山天師公事記)⁵⁰⁾를 기술한 이상호(李祥昊)씨가 일제하의 기술과 출판이었기 때문에 고의로 기피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49) 취락 - 부락이나 같은 뜻이지만 적은 단위로 모여 사는 것이다.

50) 증산천사공사기 - 李祥昊 저, 증산 최초의 전기서로 각교단의 경전이 이 공사기의 영향을 받아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민족에게 끼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원한은 본토에서, 만주에서, 러시아, 중국, 하와이 등지에 한인이 있는 곳마다 없을 수가 없었던 운명이었다.

도주 정산은 평생 도인들에게 ‘일본’이란 말을 못하게 하고 꼭 ‘왜놈’이라고 하도록 하기까지 하신⁵¹⁾ 일화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을 정도다.

아무튼 지금은 선천 상극의결원적 시대가 아니고 해원의 상생시대니만큼 구적(仇敵) 간이었던 일본과도 마음을 열고 상생(相生)의 길을 함께 가야만 할 것이다. 그 근본적인 해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해방후의 국내사정 또한 원한의 시대였다. 해방이 해원이 되지 못한 동시에 동족간에 남북의 국토가 양단되고 사상적으로 대립되어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6·25의 남북전쟁이라는 대비사(大悲史)가 일어나 북녘 붉은 마수(魔手)에 희생당한 망령(亡靈)과 생령(生靈)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미 반백년전의 비사(悲史)를 추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화해와 대화 속에 해원을 이루어 함께 한민족의 공동체로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남북 7천만의 기대요 소망인 것이다.

5. 世界的으로 본 解冤相生

다음 시각을 돌려 국제적, 세계적 그리고 나아가서 우주적인 거시안적인 면에서 해원상생의 대진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인류 나아가서 전우주적인 대명제인 것이다.

지구 5양6주 가운데 제일 원한이 쌓인 곳이 아프리카가 아닌가 한다. 백색인종이 유색인종을 깔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인들은 아주 일반 우마와 같은 동물로 간주하고 노예로 취급해서 하나의 물질로 사고 팔고 하는 짓을 자행했던 역사가 바로 1세기전까지도 있었다.

하느님과 사랑과 평화를 내어걸고는 가는 곳마다 침략의 손을 내밀어서 세계를 석권했던 것이 유럽의 소위 강대국이었다.

아시아의 각국만 해도 그랬다. 인도나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 미

51) 菴嶽 著 - 조정산 전기에서

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지에 서구인이 손을 내밀지 않은 곳은 없었으니 그에 따른 지역적인 원한이 5대양의 물구비와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다.

국가대 국가 종족대 종족의 열전, 냉전도 쉴 날이 없으니 이락에 대한 미국을 위시한 유엔제국의 갈등,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코소보사태, 라오스의 내전, 인도네시아의 민중소요, 남북한의 대치등 국부적인 불안감이 가실 날 없고 아프리카에서와 아프카니스탄등의 기아는 오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소위 경제선진국등의 수치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 원한을 말끔히 가시어야 한다. 그것은 각국의 양심적인 정치와 인도적인 외교 그리고 인류애로서의 포용력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겠지만 그 원칙은 해원상생일 수밖에 없다.

원한을 그냥 두고 서로 잘 살자고 해봐야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또 원한만 풀었다고 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룩되었다고 할 순 없으니 거기에 영구히 남아있는 과제는 상생의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이란 양위상제의 대이상, 다시 말하면 대순사상의 핵심이 되는 이 교의야말로 21세기의 인류에게 전하는 구원의 1대 메시지임을 다시 고조한다. 이 해원상생으로라야만 인류의 항구한 평화가 수립될 것이다.

IV. 結語部

이 논고(論稿)를 구상하여 본론부를 (一)~(四)로 예정하였으나 지면관계상 (一)(二)만으로 생략하기로 하여 요점만 뽑아서 쓴 것인데 산만(散漫) 부정돈된 감이 있다.

위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이 결어에 포함시켜서 초록(抄錄)하기로 하는바 기독교신학의 한부문인 실천신학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해원상생이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면에서만 작용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건설할 유일한 목표라는 관점에서 실사구시적인

말로서 결론지을까 생각한다.

1. 修道(수도) 수양의 原理(원리)

우리 인간 - 도인이든 비도인이든 누구든지 수신(修身) 수심(修心)의 수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식욕·성욕의 본능적 생존기능만 지닌 동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일 것이니 주체적인 자아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또 봉사(奉仕)와 협화의 정신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심(修心) 수도(修道)의 요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하면 천언만담을 다 두고 해원상생의 한마디말밖에 없다고 능히 단언할 수 있다.

가령 기독교가 가르치듯 '이웃 사랑하기를 네몸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을 결원(結怨)된 사람에게 한다고 해보야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불교의 경우 '남을 먼저 이롭게 하라. 남에게 베풀라'고 가르치는데 이에 앞서 원한으로 격의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풀란 말이 없어서 기본자세가 약하다.

유교의 경우 '인(仁)'과 '의(義)'를 가르치고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己所不欲 勿施於人] 고 가르치지만 너무 관념적이어서 실천력이 없어 보인다.

묵자(墨子)의 겸애설(兼愛說)⁵²⁾인 '정수리를 깎고 발꿈치를 닦아서 한사람이라도 이롭게 되면 한다 [磨頂放蹤而 利一人爲之]'고 한 말이나 순자(荀子)의 편애설(偏愛說)⁵³⁾로서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다 [拔一毛而 利天下不爲] 한 말들도 있지만 이것은 극단의 이타(利他)적 이기(利己)적 사랑을 표현한 과장된 표현일 뿐 우리에게 설득력이 약한 말들이다.

오직 양위상제의 가르침인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그것이 이상과 함께 실천성을 지닌 위대한 이상이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2) 겸애설 -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墨翟(묵자)의 주장. 현대적으로는 박애사상

53) 편애설 - 전국시대의 유학자, 荀況(순황)의 사상. 맹자의 性善說을 반대하여 性惡說의 禮治를 주장했다.

2. 社會共同體形成의 要諦(요제)

인류는 다른 미개한 동물과는 다르게 나와 우물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회성이 있다. 그러나 자아의식의 세계에 첩거하고 이기심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동생활의 지장을 일으키고 원한을 쌓게 하기 쉬우니 이것이 강해지면 개인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집단투쟁이나 전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공동체의식에 철저히 화합하고 상생, 상함으로 손을 잡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는 바 지상낙원이니 선경세계니 불국토니 하는 표현을 가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정신적 결합만을 위주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발달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화합과 단결로서 일치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요제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개인의 희생적 봉사라든지 관용적 애정이라든지 한 덕목도 소용되지만 서로간의 척이 되어 있는 원한을 먼저 풀어 없애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회인의 하나라고 하면서 사회적 질서를 짓밟고 예절은 지키지 않고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이 그 사회 전체에 원한을 맺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반면에 말한마디 행동거지 하나에도 해원이 될 수 있게 할 때 남도 기쁘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상생공영(相生共榮)하는 길이며 인류애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3. 國家經營의 大綱(대강)

어느 민족이든 국가가 스스로의 번영을 바라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일단의 정치인들이 정권획득을 위하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당을 조직, 활동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상에 맞는 국가를 경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여 서로의 국가경영능력을 과사하는데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여 기량껏 정치, 행정의수완을 펴도

늘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같이 보인다.

그것은 무슨 민주주의라든가 또 인권이니 민생이니해서 서양의 주의사상을 빌려오고 동양적 민족적 정신과 정서를 동원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하여도 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 철학적인 국가경영의 큰 뼈대(大綱)가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 논고를 마치면서 감히 여기에 다시 거양하는 바 국가경영의 지표(指標)가 되는 대강(大綱)이 일찍 증산대성인이 교시한 해원상생의 길밖에 없음을 단언하고 싶은 것이다.

국민의 원한을 걸어 낸 해원의 국토가 되게 해야 한다. 상극시대의 원한이 쌓인 곳에 아무리 국민대화합의 씨를 뿌려도 꽃이 피기는 고사하고 싹이 자랄 수조차 없다. 이 원한의 매듭매듭을 다 풀고 난 곳에 상생의 꽃, 대화합의 꽃, 대번영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의를 대순사상의 도인들은 상제의 천지공사의 하나인 해원공사로 믿고 있지만 일반인의 믿고 안믿고는 차치하고 이 성훈(聖訓)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은 자유와 평화 상생 공영(共榮)을 구가하는 시대를 이룰 것이다.

정부와 국민간의 해원상생, 자본가와 근로자의 해원상생, 학교와 학생의 해원상생,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당과 야당의 해원과 상생, 상상만 해도 거기에는 건강이 있고 낭만이 있고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원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

5천년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번영을 구가하다가 현재 IMF의 채무 속에 찬바람을 맞고 있는 한국이 이제 해원상생의 실천으로 난국을 벗어난 후 21세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룩하는 것이 얼마나 신명나는 일인가.

4. 世界平和建設의 指標(지표)

해원상생의 대원리 대진리를 국가경영발전에 응용한 후에 남아있는 과제는 21세기 신세기의 지구세계를 평화의 낙토 지상선경을 건설하여야 할 세기사적인 건설의 사역(使役)이다.

이것이야 말로 해원상생이 한 개인의 구제라든지 안락한 생활이라든지에 있는 것 뿐이 아닌 인류전체 세계전체 나아가서는 3계우주 전체의 재건설에 있는 소이연(所以然)인 것이다.

갈등과 투쟁, 그리고 전쟁의 시대는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새 세기가 되는 것이 60억 인류 공동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 기본이 되는 모토는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밖에 없음을 누누히 말했지만 이야말로 상제께서 내리신 21세기의 새복음(福音)인 것이다.

21세기가 되어도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이 기본이 된 산업사회는 다원화한 생존과 생활방식을 위한 인류의 생활양식이 전세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조차 변이하고 의·식·주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지만 인류의 정신적인 원리 원칙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도 해원상생처럼 고도로 발달한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해원상생의 진리가 살아 있는 동안 인류의 희망과 이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로써 대미(大尾)를 삼는다.